

# 후원금 한계에...문 닫은 '장기기증재단'

사회적 인식 낮아 운영난  
광주시에 청산 종결 신고서  
광주·전남지역 13년간 활동  
2600명 장기기증 서약 받아

장기기증재단은 지난해 이사회를 열고 운영난으로 법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산을 의결한 뒤 후속 절차로 청산을 마무리짓는 신고서를 최근 광주시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기증재단은 지난 2007년 12월 21일 뇌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이해 촉진 사업 등을 목표로 설립, 13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재단은 특히 생명을 나누는 일에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쌓는데 힘을 기울이면서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이해촉진 ▲각막·시신 등의 사후 기증 ▲신장과 간장, 골수 기증 ▲장기이식 수요자 실태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재단측은 광주·전남지역 곳곳에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이며 2600여명에게 장기기증 희망서약을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사망 후 연구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하도록 한 경우도 80건에 달했다.

또 34건의 안구 기증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광주지역 5개 자치구와 의과대학 등과 지속적인 현혈·장기기증 연합캠페인을 벌이며 시신 및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장기기증 등록 대기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국내 장기기증 현실을 고려하면 괄목할만한 성과라는 게 의료계 평가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만 286명이던 전국의 장기이식 등록 대기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3만 8977명으로 증가했지만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573명(2016년)에서 515명(2017년), 449명(2018년), 213명(2019년 6월)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백만 명당 뇌사 기증자 수도 한국의 경우 8.66명(2018년)으로, 스페인 48, 미국

33.32, 이탈리아 27.73, 영국 24.52, 독일 11.5에 비해 차이가 많다.

이 때문에 재단의 갑작스런 해산을 아쉬워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재단측은 자치단체 지원 없이 운영해온 만큼 활동하는데 후원금 모금이 절실했지만 쉽지 않다고 하니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워지면서 끝내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지원도 요청했지만 이미 비슷한 취지로 활동하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중복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다.

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우리 재단은 청산됐지만 다른 단체들이 생명을 나누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며 "더 많은 지역민들이 장기기증희망 등록에 동참, 함께 사는 세상, 다시 사는 기쁨을 공유하고 희망의 씨앗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온라인 개학 행정용 컴퓨터 대여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오는 16일 초등 4~6학년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컴퓨터가 준비되지 않은 관내 가정에서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중고 행정용 컴퓨터 50여대를 대여해주기 위해 배달 차량에 싣고 있다.

## 온라인 교생실습 인정 논란...“가을학기yo 연기 내실 갖춰야”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에 따라 사범대생과 교육대생이 받아야 할 교생실습(교육실습)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혼선을 주고 있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온라인 개학에 맞춰 교대생과 사범대생의 교생실습을 2주간은 관련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학교에서 진행되는 원격수업을

참관·보조하는 방식도 포함해 허용하기로 하고 이러한 방침을 최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정교사 자격을 얻으려면 4주 이상의 교육실습을 포함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생실습 기간은 대학마다 약간씩 다른데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는 4학년에 통상 4주(4~5월 중),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는 2~4

학년에 걸쳐 '관찰·참가·수업·운영·종합' 등 5가지 형태 교육실습을 총 9주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수업 체계도 안착된 상황에서 온라인 교생실습을 무리하게 인정해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 사태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교생실습의 본질을 간과하는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가능하다면 교생실습 방법을 바꾸거나, 기간을 가을학기로 옮겨 내실을 갖추게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서만 교생실습을 하는 대학생은 2~4학년에 걸쳐 교육실습을 나가는 교육대생을 포함해 사범대생 등 연간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0 달뜨기 01:48  
해질 19:05 달질 11:48

#### 투표 참여하세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7/21	보성	구름많음	3/18
목포	구름많음	8/17	순천	구름많음	9/21
여수	구름많음	10/18	영광	구름많음	4/19
나주	구름많음	4/20	진도	구름많음	6/17
완도	구름많음	8/19	전주	구름많음	5/12
구례	구름많음	4/22	군산	구름많음	5/18
강진	구름많음	5/20	남원	구름많음	3/21
해남	구름많음	5/18	축산도	맑음	8/16
장성	구름많음	3/21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남~남서	0.5	남서~서	0.5
면바다(북)	남~남서	0.5~1.0	남동~남	0.5~1.0
면바다(남)	남~남서	0.5~1.0	남동~남	0.5~1.0
남해서부	남서~서	0.5	남서~서	0.5
면바다(서)	남~남서	1.0~1.5	서~북서	1.0~1.5
면바다(동)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3:25	07:50
여수	--:--	19:47
	09:18	02:39
	20:43	14:41

#### ◇ 주간 날씨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	☁	☁	☁	☁	☁	☁
7/23	11/18	9/20	11/16	20/20	8/16	6/16

◇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 코로나 극복 희망의 노래 잔잔한 감동

'그래도 봄은 다시 오는구나'  
전남 교사 2명이 작사·작곡  
유튜브 타고 지친 국민 위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이를 극복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다.

세 사람은 지난해에도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통일 아리랑'을 함께 만들어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연도 했다.

두 교사는 지난 2013년 '너도 처음부터 꽃이었구나'라는 노래를 만들며 인연을 시작해 8년째 창작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노래를 부른 윤로사 양은 지난해 전국 규모 국악대회에서 5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아 '국악소녀'로 불린다.

고종환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개학이 연기돼 아이들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하루 빨리 끝나 웃음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노래를 만들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잠시나마 위로와 희망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